

# 이재명 “무능은 죄… 정부, 민생위기 극복에 명운 걸어야”

### 민주 지도부, 부산서 최고위 … “이태원 국조 지체된 기간만큼 연장” 북한 미사일 도발 중단 촉구… ‘검찰 전방위 수사’ 당차원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 섰다”며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더 걱정인데 끈기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 가르리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며 “국민과 함께 올

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자총수에 불과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강

경 대응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기관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화적 해법 마련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을 자정한 자리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 여부 질문에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물음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적인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는 만큼 이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야당 탄압’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애절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정당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 후퇴 없이 나아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국힘 광주시당 ‘지역현안 해결사’ 주목

### 광주 송정역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주기환 전 비대위원 가교 역할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김정현)이 불모지인 광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현안사업 등을 해결해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가 한 차례 탈락했던 공모사업을 다시 유치해 낸 것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새병원 신축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등을 이끌어 내는 등 묵묵히 여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다. 특히 정치 초년생인 김정현 시장위원장이 광주시와 각 지구와 협력해 정부 부처와 중앙당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직접 광주와 세종, 서울을 오가며 현안사업 등을 챙기면서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새해에는 광주의 주요 관문인 광주 송정역 앞에 광주시민들과 이용객들에게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만남의 광장 조성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지난해 12월30일 광산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해 광주 송정역 만남의 광장 조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측에 “광주송정역 역사 증축 3차 설계안에 반드시 광장 조성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와 협의해 광장 조성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조만간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해 광주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서 한 차례 탈락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의힘 광주시당 후보로 나섰던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野 “이달 내” vs 與 “설 이후” 임시국회 소집 기싸움

### 민주·정의당 “민생 법안 처리”…국힘 “이재명 방탄용 안돼”

2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로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의심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 “일몰 민생법안, 정부조직법,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얕팍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설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본회의 현안질문 등을 요구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의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누누이 국민의 세비로 일하는 국회라면 365일 상시국회가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회기가 국회의원의 사법 처리에 지장을 주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설을 쇠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밀려 국정조사가 지연된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그간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도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서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광주 ‘지스트’ 과학영재고 설립 근거법 마련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제외한 지역의 광주 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2일 “GIST, DGIST, 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

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 유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경매입찰, 강추** 도초섬 내 임야, 1월 9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